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김진선
제목	법의 사계(四季)		
법의 사계(四季)			
1. 내 인생의 가장 잔인한 봄			
(전화벨) 띵리리...			
나: 여보세요?			
상대방: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여기 다 불태울 테니 당장 나타나라			
<p>최근 찍은 영화들에 대한 제작사의 상업적 홍보로 배우로서의 입지가 한정될 것 같아서 나를 좀 더 진지하게 알리기 위해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후 많은 분들의 응원의 글을 보면서 '배우로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때쯤 옛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다. "기사 잘 봤어. 고생 많았겠다. 나도 너와 같은 고민을 했고 비슷한 삶을 살았어.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연락했어. 난 요즘 제주도 호텔에서 일해. 바람 쐬 겸 올래?"</p> <p>제주도로 떠났다. 내가 묵었던 방은 영화에서만 보던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초대해준 동료에게 고마웠다. 그렇게 며칠 그곳에 머무르면서 동료의 지인이었던 호텔 대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가 많이 안 되었다기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홍보업체를 연결해 주고 지역 행사나 드라마 장소 협찬도 소개를 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탈리아 관련 사업을 하시는 나의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 마침 서울에 왔던 호텔 대표가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고, 호텔 로비에 8평 남짓 비어있는 공간에서 명품 매장을 열고 싶다며 자신이 투자하겠다고 했다. 지인은 자신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면 추가로 1억 원 상당의 위탁 물건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매장 운영은 내가 하겠다고 했다.</p> <p>배우 외에 다른 일은 몰랐던 내가 갑자기 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한 이유는 남동생 때문이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힘든 누나를 못 도와주는 자신은 너무 나쁜 동생이라며 내 생일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동생에게 그런 걸 느끼게 한 게 너무 미안해서 오히려 내 심장이 찢어졌다. 내 꿈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매장을 오픈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매출이 나오지</p>			

않았다. 당초에는 호텔 직원이 판매하기로 했지만 결국 내가 제주도에 내려가 직접 판매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 노력 끝에 매출은 200% 상승했고 제주시에서는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다 잘되어 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때까지는.

갑자기 호텔 대표가 자신이 투자한 대금을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보증금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나도 지인을 통해 1억 원을 현물투자 했는데 호텔 투자금까지 돌려달라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대표는 일단 그렇게 하고 추후 다시 협상하는 것으로 적자고 하면서 날 설득했다. 며칠 후 매장 앞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수익금도 안주면서 또 투자를 했어? 뭐야?” 하면서 분양자들이 찾아왔다. 깜짝 놀라서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당분간 호텔에 오지 말라고 했다. 난 서울로 올라가서 연락을 기다렸고, 호텔 지배인에게 전화가 왔다. “대표가 바뀌었어요. 매장 문은 닫았고 간판도 떼 버렸어요. 진선씨 지금 당장 내려오래요. 상품들 다 불 태운대요!!” 전화기 뒤편으로 고성이 들렸다. “당장 오라고 해!! 짹 다 부수기 전에!!” 전화가 끊겼고, 난 너무 무서워 갓길에 차를 세웠다. ‘무슨 일이지? 정신을 차리자!! 정신 차려, 김진선!!’ 헨들을 부여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형사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친구의 조언대로 계약서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고, 난 잘못이 없으니 계약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자고 했다. 3일 동안 뜬 눈으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계약해지가 될 때까지 꼬박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모르는 번호로 매일매일 전화가 왔고 맨 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셨고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몸과 마음은 처참해졌다. 물건 파느라 잠도 못 자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 밤 울며 제주도 바다를 뛰었던 게 떠올랐다. 너무 억울했다.

물건을 회수하던 날, 제주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김진선 씨, 지금 제주도 오셨죠? 조사 받으러 오세요!! 호텔에서 매장 하셨죠? 당장 오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호텔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나에게 매장을 차려줬고 그 수익을 내가 대표에게 주기로 했으며, 횡령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는 것이었다. 형사인 친구가 알려준 대로 나는 서울에 가서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계속 전화를 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오시죠!! 얼마 안 걸리는데!! 왜요? 뭐 찢리세요?”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 난 횡령과 배임이 뭔지도 몰랐고 강압적으로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뭔지, 이래도 되는 건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법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너무 화가 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이러한 고통을 또 겪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내 머리에서 쉬지 않고 계속 메아리쳤다. 난 법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

다.

2. 눈물로 쓴 여름 장마

친구: 학사졸업 해야 하잖아~ 독학사가 빨라~

나: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거라 이끌어 줄 교수님도 필요하고 체계적으로도 배워야 해. 그리고 돈도 벌어야 해서 일반대학은 못 가고 그래서 사이버대로 알아보려고~

친구: 야!!! 사이버 대 나와서 로스쿨 가는 게 가능하냐? 다시 생각해봐

나: 아니야 좀 알아보니까 한양사이버대가 커리큘럼도 좋고 교수님들도 열정적이시고 작년에 서울대 로스쿨 간 사람도 있대~~

모든 걸 포기하고 옷 가게에서 알바를 하다가 한양사이버대에 입학했다. 그리고, 다른 사장님의 도움으로 조그만 옷가게를 열게 되었다. 돈도 벌면서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물론 장사가 안 될 때는 월세 150만 원짜리 독서실을 쓰는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더 오래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초반엔 강의에 너무 빠져 손님이 왔다갔는지도 모를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단골손님들이 공부하고 있는 나를 직접 부른다. 하루하루 매일 아침 가게를 열고 컴퓨터를 켜서 강의를 듣기 전에 백건우 씨의 피아노 연주곡을 틀면 이전과는 달라진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평온하고 조용하고 서로 해치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 난 법을 배우며 그렇게 마음을 치유했고 이곳에 오는 단골손님인 어머니들을 통해 세상의 소식을 들었다.

입학하고 처음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날이 기억난다. 난 당돌하게 물었다.

“교수님, 사이버대학을 나와서 제 나이에 로스쿨에 합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내겐 너무 절실한 질문이었다.

내 얼굴을 빤히 보시던 교수님께서서는

“글쎄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로스쿨을 가기 위해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민법 시험을 보는데 시계가 없어서 시간 체크를 못한 나머지 8문제나 못 풀었다. 공부도 진짜 많이 했는데 바보같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마냥 고민하면서 푸느라 시험을 망쳐버렸던 것이다. 시험을 마치고 가게에서 평평 울었는데 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 가게 미용실 원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달려오셨고 부동산 사장님도 뛰어오셨다. ‘망했어... 망했어...’ 하면서 통곡했지만 너무 아쉽다 보니 창피한 줄도 몰랐다. 그날 이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내 가게에는 자명종 시계 3개, 탁상시계 2개에 알람시계까지 놓아져 있다.

나는 법 과목 중 특히 형법을 좋아한다. 처음엔 용어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괜히 애꿎은 교수님 탓을 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뭐야, 위법성

조각사유는 뭐고... 법익의 침해라... 구성요건!!” 깧 소리를 매일 질렀다. 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막막했지만 조금씩 익숙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용어들이 자연스러워졌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경제법에 빠지게 되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배우다 보니 신문을 볼 때마다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집중하고 혼자 불끈불끈하기도 하면서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한양사이버대는 나에게 지나간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게 또 다른 꿈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만약 한양사이버대가 아니었다면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꿈을 다시 꾸어볼 수 있었을까? 지금도 궁금하다.

학기 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더듬거리던 내게 멘토-멘티 제도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다. 나같이 유리 멘탈인 사람에게는 무조건 멘토가 있어야 하는데, 난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멘토였던 선배에게 전화를 한다.

“선배님, 진짜 너무 힘듭니다”, “선배님, 인상을 너무 써서 십년은 늙었습니다”, “선배님, 민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선배님, 기업법 시험 문제가 수업이랑 완전 다르게 나왔어요” 하소연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멘토 선배를 괴롭히고 있다. 아동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나는 법학뿐 아니라 아동학과 놀이지도 등 아동학 관련 과목도 수강했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법과 아동’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다양하게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니 이 어찌 나에게 맞춤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모르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들을 수 있고, 때와 장소를 내 마음대로 정해서 들을 수도 있다. 이런 교육이 없었다면 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매일 강의를 듣고 또 듣고, 틈틈이 일을 하고 시험 때만 되면 커피를 쏟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뻗는, 소처럼 사는 생활에 가끔 지칠 때는 ‘왜 시작했을까, 이 바보바보’하며 한심해하다가 ‘아니야, 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걸 기억해’ 하며 스스로 토닥거리기도 한다. 암기가 잘 안 되거나 한계가 느껴질 때,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도 열정적인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다시 교안을 펼치게 된다.

어김없이 컴퓨터를 켜서 강의를 듣고 교안을 찾아보고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강의를 찾아보고 모르는 수많은 법학용어들을 틈틈이 검색하고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법을 생각하고 찾아보는 일상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하다. 아직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까지 성적은 평점 4.3을 유지하고 있고, 국가장학금도 받아서 어려운 환경도 잘 헤쳐 나가고 있다. 성적을 망칠까 노심초사하다 보니 가끔은 시험 보다가 컴퓨터가 꺼지는 악몽을 꿀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배울 수 있음에,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제 난 4학년이다. 지금 이 시간은 내게 “평화를 위한 전쟁” 같은 시간이다. 난 남은 1년도 열심히 할 것이다.

3. 낙엽을 보내고 열매를 맺은 가을

나: (엄마, 아빠에게) 엄마 어릴 때 나 혼자 두고 방치했지? 그거 유기죄야
아빠도 알고 있었지? 그럼 아빤 방조죄 적용이야~
(남자친구에게) 너 어제 뭐 했어? 너 지금 알면서 속이려고 한 거야~
미필적 고의도 고의야. 사과해!!

내게 법은 그 어느 곳보다 가까이 있었다. 내가 법을 배우면서 잘 모르는 법률개념을 부정확하게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일이 잦아졌다. 배우 하던 때도 엉뚱해서 30년차 선배에게 “선배는 연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배가 하는 연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선배들을 괴롭히고 어리둥절하게 했던 후배였는데 요즘은 가족이건 친구건 지인이건 모든 관계와 상황에 법을 대입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친분이 있는 기업 대표님을 뵈게 됐는데 “지금 대표님 회사는 시장지배력이 있는 회사로 판단되고, 독점행위가 있을 수 있고 불공정한 기업합병이나 공동행위는 불법행위로...” 오랜만에 만난 지인 앞에서 선무당처럼 떠들어대면서 내가 아는 모든 경제법을 불태웠다. 또 몇 달 전에는 여동생과 제부가 내게 불만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네가 교사를 해서 제부가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 거기다 그걸 보고도 넌 그냥 있었어. 그건 방조범이야” 그랬더니 동생은 몇 달째 연락이 없고 20년 넘게 화목했던 자매관계는 잠시 멈췄다. 비록 지금은 남루한 지식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법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 없이 바라본 세상, 어지러운 관념들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부당하며, 무엇이 과실이고 무엇이 고의인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알게 됐고, 법치국가에 살면서 법을 몰랐던 나를 또 한 번 돌아보게 되었다.

비상식적인 것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들과 누구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어 억울하게 사는 아동들까지,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비단 나만을 생각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을 통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 거기서 더 내가 아는 법만큼 사람들도 알았으면 하는 바램까지, 이 모든 것을 찾게 된 것은 법을 배우면서 얻게 된 나의 가장 큰 성과였다. 막연히 법학을 배워서 로스쿨을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내게 이러한 학습 과정은 더 큰 의미를 일러주었다.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던 도덕적 관념들도 더 명확해졌다.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자신도 찾게 되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나의 가치관도 더 뚜렷해졌고 나 자신을 믿고 있는 힘껏 가보는 용기가 생겼다. 배우로 세상을 살던 나로부터 법을 배우며 세상 사는 법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배운다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는 일 같다. 그래서 난 그 고민을 끝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 갈 것이다.

4. 희망의 씨앗을 품은 겨울

동생: 밥 먹어야하니까 마*जू 한 개만 먹어~ 자~ 약속~

조카: (한 개를 다 먹더니) 아.. 또 먹고 싶다..

(마*जू 뚜껑을 열고 냄새만 킁킁)

나: 필훈아~ 아빠 몰래 먹어~ 고모가 숨겨줄게~~ 괜찮아~ 약속 어기면 어때~

조카: (뚜껑을 닫고 마*जू 통을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더니) 안 돼!!

몰래 안 먹을 거야!! 아빠랑 약속 지킬 거야!!

내 조카 필훈이는 나의 힘든 일상에 비타민 같은 존재이다. 아가 때부터 유난히 고모를 따르더니 유치원에 들어간 지금도 ‘고모~ 고모’ 만 찾는다. 유치원에 들어간 조카를 어쩌다 가끔 내가 하원시키는데 어느 날 조카 친구 재윤이가 “고모, 필훈이 버스에서 맞았어요, 재한테” 이러는 거였다.

선생님께 여쭙더니 필훈이가 장난감을 보고 그 아이한테 다가갔다가 그 아이가 다가오지 말라며 조카 얼굴을 쳤다는 것이다. “필훈아, 그 아이가 때려서 놀랐어?” 조카는 그 아이가 친구라서 자기는 때리지 않았다고 했다. 난 너무 속상했다.

“필훈아, 누가 너를 때린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야 악당이야”, “앞으로 누가 널 때리거나 괴롭히면 악당이니까 무조건 말해야 돼!!”

조카가 아가일 때부터 난 “때리면 나쁜 어린이~”, “나쁜 사람은 잡아가요” 하고 가르쳐줬던 게 생각이 났다. 후회가 됐다.

법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판사가 되고 싶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리겠노라’ 하는 큰 포부를 갖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거칠고 공격적인 내 성향과 부족한 내 인성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고

‘과연 내가 판사를 잘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법을 배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였다.

난 법을 알아갈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재밌었다.

그때 문득 ‘아. 어려서부터 법을 배우면 어땠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구구단 배우고 외우듯이 기본적인 민법, 형법, 헌법을 알았다면 중학교부터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무엇인지 불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랬으면 사는 게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나의 사랑하는 조카가 사는 세상은 아이들이 법 교육을 받아 스스로를 그릇된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양심만으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포부가 생겼다. 모두가 법을 알아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선한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 또 모두가 법을 아니까 필요 없는 법은 없어질 것이고 시대에 맞춰진 좋은 법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세상은 조금 더 공정해져 억울하게 울며 살지 않아도 되는 내 조카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난 로스쿨

에 꼭 진학해야 한다. 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워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변호사가 되어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과 아동”을 연구하여 책을 펴고 아동복지 행정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 앞으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어렸을 적 내가 처음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늦은 나이에 법을 배운다고 했을 때도 모두 비웃었다. 지금 내가 하는 얘기도 모두들 뜬구름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살아 온 나를 지켜 본 사람들은 나를 믿어줄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멀고 험난한 일들이 내 앞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밀려오지만 내 얘기가 나는 궁금하다. 졸업을 1년 남겨 두었고 올 여름에 법학적성시험(LEET)을 치루고 겨울이 되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것이다. 내가 만들 세상을 향해 한발자국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여전히 춥고 배고픈 겨울이지만 기꺼이 이 겨울을 즐길 것이다. 다가올 봄의 씨앗을 품고 조카가 사는 세상은 법 없이도 양심으로 사는 세상으로 난 선물해줄 것이다. 양심의 밑알을 심을 것이다. 난 나를 믿는다.